

오키나와의 숭배문화를 알아보자

오키나와에는 수 많은 신이 존재합니다.
마을을 지키는 신, 부엌을 지키는 신, 오키나와를
창조한 신화상의 신, 오키나와의 사람들을 지켜주는
조상신 등, 가쓰렌성터는 이러한 신들이 모여져 있는
"우타키"라는 장소가 많이 존재하는 신성한 곳입니다.
우타키에서는 "가만쥬"라고 불리는 신녀가 공적인
종교의례를 행합니다.

1 다마노미우지 우타키



아지(지역의 호족)의 수호신을
모신 참배소. 큰 바위는 가쓰렌을
지켜주는 영석(靈石).
"옛날에는 우시누지가마와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설이 남아
있습니다.

2 우시누지가마



"가마"는 동굴을 뜻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때 이 동굴에
숨어 재난을 피했다고 합니다.

3 우미치문(불의 신)



이 곳은 부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불의 신'이란 부엌에
모셔져 있는 집안의 신을
말합니다. 오키나와에서는 현재도
주부들이 가족들의 가호를
기도하며 부엌에서 불의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4 두누무투



음력 2월과 5월에 행해지는 우마치
(수확축제)때 가만쥬(신녀)들이
앉아 있던 돌의자.

5 미투가(부부 우물)



연분을 맺어 주는 우물. 이 곳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면 영원한 부부로
...그러나 실현하면 남녀 중 어느
한쪽이 목숨을 잃는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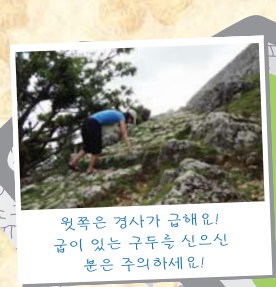
6 우타미시가



구정 때 수량을 보고 그 해의
농작물의 작황을 점쳤던
우물이라고 합니다.
•물이 적다⇒흉작
•물이 많다⇒豊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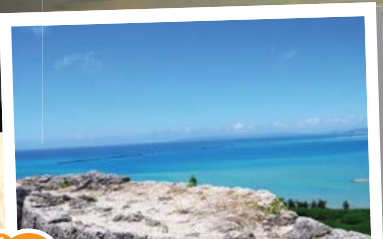


오키나와의 세계유산 중에서
가장 오래 된 구스쿠 "가쓰렌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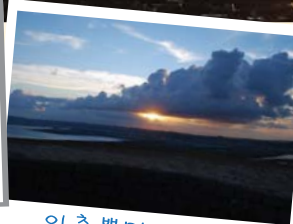


왼쪽은 경사가 급해요!
굽이 있는 구두를 신으신
분은 주의하세요!

- 비가 오는 날은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발 밑을 조심해 주십시오.
- 성벽에는 올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스쿠에서
조망하는 오션뷰



일출뿐만 아니라
석양도 만끽할 수 있어요.

제1성곽

제2성곽

제3성곽

휴식 스팟

치무타카누 우타키

성벽에 기대어 쉬는 **항** 때의 휴식
구스쿠의 바깥에 **바깥**까지 상쾌해집니다.



새벽의 제2성곽에서.
낮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환상적인 세계가 펼쳐집니다.

제4성곽

조우구치누 가

니시하라우조 문

나카마누 가

동쪽 성곽

가(우물)

— 추천 경로
📷 촬영 스팟



야경도 아름다워요.



번영, 그리고 쇠퇴... 때는 15세기 가쓰렌의 낭만은 거기에 있었다

전승에 의하면 초대 성주인 가쓰렌아지(*1)는 5대까지 이어지나 대를 잇지 못하게 되자 6대째 성주로 이하아지의 6남을 양자로 맞이했습니다. 그 후 7대, 8대째 성주는 하마카와아지로 됩니다. 9대째의 모치즈키아지는 폭정을 행하고 술에 빠지게 되어 사람들로 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던 아마와리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아마와리는 10번째의 성주가 되어 해외무역으로 가쓰렌을 크게 번영하게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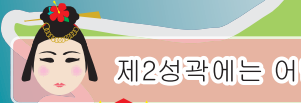
(*1) 아지:지역의 권력자, 호족



제1성곽에는 뭐가 있었어요?



귀중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제2성곽에는 어떤 건물이 있었어요?



슈리성의 정전처럼 기둥이 많은 훌륭한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 내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으로 말하자면 관공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지요.



하에바루우조 문



가쓰렌성은 어떻게 번영했나요?



중국 도자기류가 대량으로 출토된 것을 보아 가쓰렌이 해외무역의 중심지로 번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송, 원, 명나라 때의 도자기를 비롯해 동남아시아의 도기, 야마토(일본 본토)와 고려계의 기와, 중국과 일본의 옛날 화폐, 구슬, 동제품, 철제품, 갑주의 조각 등이 발굴되었거든요.

동쪽 성곽

제3성곽

제1성곽

제2성곽

니시하라우조 문

제3성곽은 어떤 데에 쓰여졌어요?



의식 등을 행하는 넓은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가쓰렌의 성주 아마와리

아마와리의 세력에 위협을 느낀 류큐국왕(*2) 쇼타이큐는 아마와리를 견제하기 위해 종신인 고사마루를 나카구스쿠성에 거주시키고 자신의 딸 모모토후미아가리를 아마와리에게 시집보냈습니다.

그러나 천하통일을 노린 아마와리는 1458년에 고사마루를 치고(고사마루·아마와리의 난) 왕권탈취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아내인 모모토후미아가리와 오시로켄유(모모토후미아가리의 시중인)에게 들리고 만다. 두사람이 국왕에게 위기를 전함으로써 아마와리는 오시로켄유가 지휘하는 왕부군에 의해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2)류큐: 1429년부터 1879년까지의 450년 동안 오키나와는 류큐왕국이라는 독립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다.

많은 역사서에서는 아마와리를 류큐왕부에 저항한 역신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연구를 통해 그가 훌륭한 군주로서 칭찬받고 있었음이 밝혀지면서 '고사마루, 아마와리의 난'은 두 사람의 힘을 두려워한 류큐왕부가 그들을 배제하기 위해 획책한 것이었다는 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극의 왕녀 모모토후미아가리

모모토후미아가리는 남편인 아마와리를 살해한 오시로켄유와 재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켄유 또한 왕부의 음모에 의해 살해당하자 남편을 잃은 그녀는 외로운 은거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정략결혼에 이용되고 두 번이나 남편을 잃은 모모토후미아가리는 그야말로 비극의 왕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